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5월 17일(금)

(음력 4월 10일)

Пятница

17 мая 2024 г.

№ 19 (1208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18일은 국제 박물관의 날이다.  
사진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체호브의 '사할린 섬'책 문학미술박물관의 체호브 사할린 방문 상설 전시관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 단신

### 주지사, '사할린의 전통,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전시회 2단계 열어

지난 16일(목)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공원(박물관)에서 '사할린의 전통,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전시회 2단계를 열었다. 이번 전시에는 사할린주의 18개 지방자치체들이 소개되었다. 전시관의 18개 장소에서 각 지자체에 대한 사진, 역사, 흥미로운 사실 등을 반영하는 정보를 볼 수 있다.

### 사할린 주, '박물관에서의 밤' 행사 개최

5월 19일은 국제박물관의 날을 기념한다. 최근 몇년간 이날에 러시아의 모든 박물관에서는 전국 '박물관에서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세대에서 세대로. 가족의 유산'이다. 행사 일환으로 가족전과 유물, 박물관의 왕조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할린의 주요 박물관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 주두마 회의에서 토착 소수민족에 대한 논의 이루어져

현재 북부 소수민족 원주민은 사할린 섬의 7개 구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5월 15일(수) 열린 제9차 사할린주 주두마 회의에서 섬지역 북부 소수민족 원주민 권리대표인 알렉세이 리만조가 발표했다.

알렉세이 리만조는 사할린에는 현재 나나이, 오로크(우일타), 에벤크, 닙흐 등 소수민족의 대표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주로 농업, 어업, 임업 및 기타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원주민 경제 및 공공 협회가 있다. 91개의 씨족 농장과 공동체 중에는 50개의 토지 공동체와 12개의 가족-씨족 공동체, 17개의 농민농장, 12개의 다양한 급의 공공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원주민의 권리는 러시아 연방 헌법과 연방,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지역 법률에 의해 모두 보호된다. 리만조 대표는 원주민들이 국가로부터 정기적이고 끊임 없는 지원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 스미르니흐 '미르' 공원에서 최신 이동식 영화관 개장

5월 16일(목)부터 스미르니흐 미르 공원에서 최신 이동식 영화관이 운영되고 있다. 영화차량은 최신 기술 장비를 갖추고 좌석 수는 67석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정착지를 떠나지 않고도 최신 영화를 접할 수 있다.

이동식 영화관은 영화관으로 변신할 수 있는 트럭 트레일러이다. 내부에는 에어컨과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영화 상영은 10월 말까지 진행되며, 차량은 부유클릭과 오노르 마을 등을 운행하여 순회 영화 상영을 할 예정이다.

## 국가 두마, 유리 트루트네브를 부총리로 승인

국가 두마에서 러시아 대통령 극동 연방관구 전권대표인 유리 트루트네브를 부총리로 승인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연방 국가 두마 프레스센터가 전했다.

부총리는 연설에서 극동 지역에서 시행된 주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극동과 북극 개발을 관리하기 위한 총체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국가 지원으로 극동 연방관구와 북극지역에 1,001개의 기업이 설립되었으며 투자자들은 실제로 경제에 4조 3천억 루블리를 투자했습니다. 국가 지원을 받은 투자 프로젝트는 총 4천개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의 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라고 트루트네브 전권대표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전했다.

2030년까지 1,700개의 기업이 운영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2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투자 규모는 10조 5천억 루블리로 증가할 것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극동연방관구 25개 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추진되고 있다. 연말까지 러시아 북극의 16개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는 우대 모기지와 '헥타르'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되었고, 극동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 보조금'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기반 시설이 현대화되고 있다. "1000 단지 마당" 프로그램에 따라 극동 연방관구 내 1,810개 공공 장소가 이미 개선했다.

## 사할린 석유가스 산업단지의 첫 번째 단계를 8월에 시운전

유즈노사할린스크 북부에는 사할린 산업단지(인드스트리얼 파크)의 1단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 가을까지 세 개의 행정실용실 건물들이 시운전되고 필요한 모든 엔지니어링 인프라가 준비될 예정이다. 또한 2단계 시설인 작업장 및 생산 단지 건설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주 개발공사 경영진, 산업단지 사업참가자와 석유가스 분야에서 서비스제공을 위한 프로젝트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광산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산업단지 부지에서 운영될 것이다.

(2면에 계속)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하얼빈 국제경제무역 전시회 참가

위탈리 다닐로브 부시장은 단장으로 하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대표단이 제33회 하얼빈 국제 경제무역 전시회에 참석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는 중국과의 국제관계 강화의 일환으로 하얼빈 경제무역박람회 2회 연속 참가하게 됐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대표단은 시행정부 대표, 도시 기업가, 그리고 '루스키 테렘' 예술단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도서 지역 기업가와 하얼빈시 간 협력 전망, 박람회 참가, 중국 관광객 사할린 유치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얼빈 경제무역전시회는 파트너십, 투자 및 기술 교류를 위한 중요하고 효과적인 플랫폼이다. 양측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중국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심이 있다. 박람회에서 사할린 생산자들은 제품을 시연하고 참가자들을 위한 시식회를 개최한다. 또한 중국 파트너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하얼빈과 헤이허에서 무역 및 경제 협력 전망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사업 발전 기회에 대해 논의한다.

제33회 하얼빈 국제경제무역 전시회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며 '협력, 상호 신뢰, 기회'를 모토로 열리는 이 박람회에서는 지역 차원의 중러 협력, 에너지, 교육, 문화, 관광, 금융 협력, 청소년 교류 등을 주제로 행사가 열린다.

제33회 하얼빈 국제경제무역 전시회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며 '협력, 상호 신뢰, 기회'를 모토로 열리는 이 박람회에서는 지역 차원의 중러 협력, 에너지, 교육, 문화, 관광, 금융 협력, 청소년 교류 등을 주제로 행사가 열린다.

새고려신문

## 2024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사할린 석유가스 산업단지의 첫 번째 단계 올8월에 시운전

(1면의 계속)

이들은 업무 조직에 필요한 것을 갖춘 시설을 임대할 수 있고, '유즈나야' 선두개발지역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은 우리 지역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할린에서 처음부터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에 서구 기업들이 수행하던 서비스를 이제 이곳에서 현지화된 기업들이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섬 지역 전체 경제에 미칠 영향의 전망을 고려해서 저는 항상 시설 건설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및 미래의 산업단지 참가자와 지속적인 대화 모드로 모든 이정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사할린주 개발공사 제1부사장 세르게이 라스토츠킨은 "오늘날 상수도 및 폐수 처리 시스템의 주요 간선망이 건설되었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전력 공급에 대한 작업을 마치고 주요 도로공사는 70% 진행할 계획입니다. 완공은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라고 주지사에게 보고했다.

두 번째 단계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참가자들이 자체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제반시설, 도로 등과 연결 되는 13개의 토지계획이 형성되었다. 현재까지 산업단지

의 거의 모든 구역에 대한 사용 계약이 체결되었다.

입주 기업들은 기술 프로세스를 중단하지 않고 파이프라인을 복구하고, 가스터빈, 전기 모터 및 발전기를 수리하며, 시설의 수중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대형 화물과 장비를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 예로 '불가프롬알얀스'기업의 안드레이 빠찌브라토브 대표이사는 주지사에게 석유가스 장비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부지 건설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는 2022년부터 사할린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1,800평방미터 규모의 서비스 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모든 인허가 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7월에는 토공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라고 지역 수장에게 안드레이 안드레이 빠찌브라토브 대표이사가 말했다.

'아일랜드 제너럴 서비스'회사는 산업 단지의 틀 안에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하나는 석유가스 회사를 위한 운송물류 단지 공사다. 이미 완공된 기반 구조물의 총 면적은 1,500평방미터이다. 두 번째 기획은 산업용 가스 공급이다.

사할린에서는 탄화수소 생산과 액화 천연가스 생산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석유가스 산업 단지 건설은 2022년 여름에 시작했다.

### "조국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사할린 동포 60 명 영주귀국

#### 지난달 27 일 16 명 이어 11 일 동해항 통해 입국... 올해 261 명 고국품에 안긴다 첫 환영행사 주최 재외동포청 "고국 잘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와 그 자손 등 60명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 품에 영원히 안겼다.

사할린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객선을 타고 영주귀국한 동포는 11일 오후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항했다.

이번 영주귀국 동포 중 최고령인 황순남(85) 할머니를 비롯한 사할린동포들은 '동토의 땅' 사할린에서 긴 세월을 돌아 고국땅을 밟았다.

2023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자손은 총 261명으로, 4월 27일 16명의 동포와 자손이 단체입국한데 이어 이번엔 60명이 2차로 단체입국을 하게 된 것이다. 나머지 185명은 개별입국한다.

영주귀국 사업을 진행하는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과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이날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사할린 동포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휠체어를 타거나 서로 손을 잡고 밝은 표정으로 배에서 내린 동포들은 크게 숨을 한번 쉬고는 감격해하면서 재외동포청 관계자와 대한적십자사봉사단원들의 축하인사를 받으며 행사장에 도착했다.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은 배를 기다렸다가 입국장에 들어가 황순남 할머니 손을 잡고 환영식에 나타났다.

최 차장은 환영사에서 "하늘길이 막혀 24시간을 여객선에서 보내시며 오시는 동안 고향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셨는지, 또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다"며 "출로 외롭다고 느끼지 않으시도록, 이제부터 조국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겠다"고 위로했다.

이어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우리 정부는 꽃피는 봄에 고향으로 돌아오신 사할린동포 분들께서 고국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재외동포청 출범(6월 5일) 이후 처음으로 치른 환영식에는 박종술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이재영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장 등도 자리했다.

환영식이 끝난 뒤 사할린동포들은 자신들이 영주귀국할 전국 거주 예정지역으로 이동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지만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주귀국 동포들은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는다.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보건복지부, 법무부, 대한적십자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 이 모 저 모

#### '러시아의 국경' 의료봉사팀의 의사들, 이투루프 환자 진료

"러시아의 국경" 의료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의사들이 쿠릴스크 중앙 지역 병원에서 환자를 받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크라스니 마야크(붉은 등대)"사회정치신문이 보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스몰렌스크, 체복사리, 블라디보스토크의 전문의들이 이투루프섬을 찾았는데 의료팀의 전문가 모두가 폭넓은 실무 경험과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의료기관들에서 노동 경험을 가지고 있다.

기사는 "고르노예, 고라치예 클류치, 레이도위 마을 등을 세 차례 이동해 진료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쿠릴스크 지역 주민들은 심장 전문의, 외상 전문의-정형외과 전문의(어린이 및 성인), 위장병 전문의, 척추 지압사, 물리치료사, 신경과 전문의(어린이), 비뇨기와 전문의(소아, 여성 및 남성), 산부인과 전문의(소아 및 성인), 심리학자, 종양 전문의, 유방 종양 전문의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초음파 진단(어린이 및 성인)을 받을 수 있다. 진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3시부터 14시까지다. 환자 접수는 예약없이 현장 방문 순서대로 진행된다.

#### Врачи-участники экспедиции «Рубежи России» ведут прием на Итурупе

В Курильской ЦРБ начали работать врачи медик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Рубежи Росс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газете «Красный маяк».

На Итурупе прибыли медик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оскв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Смоленска, Чебоксар, Владивостока. У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экспедиции большой опыт практической работы и опыт труда в ведущих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своих регионов.

«Запланированы и три выезда в Горное, Горячие Ключи и Рейдово», - отметили в сообщении. Жителей 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а будут обследовать кардиолог, травматолог-ортопед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мануальный терапевт, врач ЛФК, невролог (для детей), уролог (для детского, женского и муж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акушер-гинеколог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психолог, онколог, онколог-маммолог, можно будет пройти ультразвуковую диагностику (детям и взрослым). Медики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с 9:00 до 18:00 с перерывом на обед с 13:00 до 14:00. Прием ведется без записи в порядке живой очереди.

#### 사할린, 어린이 철도 70번째 시즌이 열려

어린이 철도 70 번째 시즌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에서 열렸다. 이에 대해 시행정부 보도부에서 전했다.

전통적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어린이 철도 이용 여름철 시즌은 승리의 날(5월 9일)에 열리고 있다.

"참전 용사들을 축하하고 전쟁의 노래와 함께 첫 번째 기차를 만났다."라고 전해졌다.

어린이 철도는 대조국전쟁 전승 79주년을 맞이하여 누구나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이미 수십 명의 현지 주민들이 이 혜택을 이용했다.

####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и 70-й сезон работы дет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оржественно открыли 70-й сезон работы дет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эрии.

Традиционно юбилейный сезон летних пассажи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на дет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открывают в День Победы.

«Поздравили ветеранов и с песнями военных лет встретили первый поезд», - добавили в сообщении.

В 79-ю годовщину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рокатиться бесплатно. Эт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уже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десятки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 사할린 주민들, 무료로 건강 검진을 받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건강해지는 것이 곧 트렌드' 축

제가 열렸다. 국가 프로젝트 "인구학"의 일환으로 섬에서 열린 이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11일(토) "시티몰"쇼핑센터 3층에서 여러 의료 전문 기관의 전문가들이 활동을 펼쳤다. 방문객들은 행사장의 여러 부스에서 만성 비전염성 질환의 위험 요인에 대한 검진을 받고 이와 관련 전문가들의 상담과 에이즈 익스프레스 테스트를 받을 수 있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과 방문객들은 총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혈압과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호기 중 일산화탄소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최소 두 번 이상 시내 쇼핑 센터들에서 이러한 축제를 개최하려고 노력하는데, 대중적으로 꽤 인기가 있습니다. 행사 진행에는 사회건강센터와 함께 어린이 진료소, 피부 및 성병 진료소, 에이즈 센터가 참여합니다. 행사장의 각 부스에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진료소가 맡은 장애는 엄마와 아이들이 모두 수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형 스탠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훌륭한 시각적 모델도 있습니다. 마약 환자를 위한 진료소에서는 정기적으로 개인을 위한 간단한 예방 상담을 제공합니다. 피부 및 성병 진료소 직원들은 피부의 다양한 발진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휴대용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소규모 지부, 예방건강실과 사무실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조직할 수 있으니 다른 지방 자치 단체의 동료들도 동참했으면 합니다. 건강은 유행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유용하고 유리합니다. 예방 및 건강 검진, 확대건강 검진은 뭐니뭐니 해도 건강의 기반이고 어떤 경우에도 질병을 나중에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사할린주 사회건강 및 의료 예방 센터의 부장 아이굴 아흐메토프가 말했다.

(8면에 계속)

## 한인 단체 소식

지난 주에도 사할린 한인단체들은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모두가 나름대로 승리의 날을 기념했고 수많은 동포들이 이날 승리광장, 영예광장, 시공원 행사장들을 찾았다.

## 사할린주한인협회, 어버이 날 기념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지난 10일(금) 어르신 60명을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 모시고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주최측을 대표해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과 주한인정년회 오 블라디미르 회장이 가족들의 배려와 사랑 속에 행복하게 무병장수하시길 기원하며 할머니·할아버지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감사인사를 올렸다.

이날 어르신들을 위한 전통무용과 K-팝 댄스, 노래 공연이 있었고, 정성껏 명절상이 차려졌다.



## '사할린한인'시한인회, 자원봉사로 요리교실 열어

지난 12일(일)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곤)에서 '빅토리아'유즈노사할린스크 비영리 단체(회장 이민자) 회원들을 초대해 김밥요리교실을 열었다. 이날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한 김 스페틀라나는 우선 김밥의 기원, 종류, 만드는 법, 재료 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직접 만들기에 나섰다.

장애아 엄마들을 위한 요리교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할린한인'시한인회에서 이미 몇달간 함께 활동 중에 있다. 주최측은 장애인의 엄마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반드시 기분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이런 활동을 펼쳐왔다고 전했다. 부모가 건강해야 아이들의 건강도 잘 지킬 수 있다. 또한 '사할린한인'시한인회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장애인 축제 일환으로 '빅토리아'단체가 개최한 박람회에도 적극 참가했다.

어버이날에는 시한인회에서 75세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점심명절상을 장만하고 이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 '에트노스', 단오 주제로 공연극 연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한민족예술과는 학년도가 끝날 무렵에 해마다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발표공연을 준비한다. 이번 공연은 한민족의 단오를 주제로 삼아 지난 12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단오(端午)는 한국 명절의 하나로, 음력 5월 5일이다. 무더운 한여름을 맞기 전 초하(初夏)의 절기이며,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를 지내는 때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음력 5월 5일 단오와 관련된 전통적인 행사가 각 지역에서 열린다. 올해 공연에서 '에트노스'학생들은 한 지방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지내는 단오 장면들을 보여주었다. 4-8학년생들은 연극공연으로 사물놀이, 가야금, 단소 등 연주, 전통 무용과 현대 댄스, 민요와 K-팝 등을 통해 단오 명절에 하는 전통 의식, 놀이 등을 훌륭하게 소개해 공연을 관람한 학부모, 친지들과 친구들의 환호를 받았다.

'에트노스'학생들은 이번 무대 역시 관객들의 기



대에 부응하는 멋진 무대로 마음을 사로잡았다.

공연이 끝나자 '에트노스'의 안나 위로호와 교장은 발표한 각 학교 팀, 예술단, 그리고 한민족예술과 신 울리아 과장을 비롯해 각 지도교사들을 무대에 모셔 소개했다.

(본사 기자)

(사진: '에트노스'학교 제공)

## 사할린 한인 2세의 '서러운 아리랑'

이병일(전 사할린한국교육원장)

사할린한국교육원장 3년간 업무를 마치고 귀임한지 1년이 지났지만, 사할린 동포들의 서러운 처지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2020년부터 전 세계 비행기도 멈추게 한 팬데믹 코로나 시절을 사할린에 고립되어 함께 웃고 울고 보냈다. 동포들과 만나면 함께 불렀던 아리랑을 불러본다. 아리랑 선율에 새로이 개사한 노래다. 교육일지에 부쳐놓은 사진 속에 있는 사할린 동포 2세들의 얼굴들을 한분 한분 떠올려본다. 이제부터 그들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가족과 헤어져야만 했던 '이산'과 지금 다시 사할린 2세들이 또다시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는 '이산의 이산'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 이산(디아스포라)의 이산

1990년대 사할린 1세대 동포들의 영주귀국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모가 사망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부모를 두었거나, 영주귀국을 했으나 한국 국적이 나오기 전에 돌아가신 부모를 둔, 2세대 사할린 한인들의 한 맺힌 이산에 관한 것이다.

사할린 2세 분들은 2024년 현재 연령상 60대 후반 70대 후반으로서, 조국 귀환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불쌍한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통절한 한을 품은 분들이다. 나는 2세대 어르신들의 사무치고 뼈저린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한다.

"왜 한국은 그렇게 발전했으면서 우리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죠? 옛날엔 찢어지게 가난했다, 전쟁으로 힘들었다, 다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부모들은 우리에게 한국어와 한자를 가르쳤어요. 조국에 돌아갈 때까지 잊으면 안 된다고. 저 산 넘어가면, 바다 건너가면 조국 조선 땅이 있다고 했어요. 고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련 시절에, 영주귀국 전에,

병으로, 이종징용으로 다 돌아가셔서 우리들은 갈 기회가 없어졌어요. 우리 뒤에요?"

"부모가 끝내 돌아가지 못한 고향에, 왜 사할린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못 살아 보는 거죠? 한국말도 못하고 생활방식도 한국식으로 잊지 않고 지켜왔는데?"

"엄마가 병이 든 채 영주귀국을 했는데, 한국 국적이 나오기 전에 한국의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러시아 국적으로 돌아가셨다고 자녀들에게 아무 기회가 없어요. 또 병든 남편과 영주귀국을 했는데, 남편이 국적이 나오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2세인 부인에게는 국적이 안 나와요. 무슨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원장님. 다 정리하고 남편따라 왔는데,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가라구요?"

한국에서 파견된 교육공무원은 할 말이 없었다. 그런 것을 결정하거나 영향을 미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지어주신 디아스포라와 애환을 담은 가사에 노래를 불렀고, 교실과 공원에서 한국의 인기 가요를 불렀으며, 탈춤을 소개하고 민속춤을 같이 추었으며 한국문화 수업을 했다.

그리고 한국어말하기대회에 나가시는 어른들이 발표할 내용을 종이에 작성해서 가져다주시면, 나는 컴퓨터를 열고 문서 파일로 옮겨 드리는 과정에서 한국어맞춤법과 문법에 맞게 수정하는 역할을 해드렸다. 또한 동포들이 주문한 한국문화 물품(한국전통춤 부채, 홍삼 등)을 여행가방에 그득 담아 비행기로, 배로 날라다 드렸다. 한국에 복귀한 이후에는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들의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면서 더욱 한인들의 이산에 대한 아픔을 가슴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 "고향 경남이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道,

## 귀국 사할린한인 쉼터 개소

경남도는 지난 10일 도내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쉼터를 양산에서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하는 쉼터는 양산시 소재 사할린 한인 거주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일부를 시설 리모델링을 거쳐 여가와 친목 활동 공간으로 쓸 수 있게 됐다.

지난해 3월부터 경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양산시와 협력해 쉼터 운영을 공동 논의해 올해 초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포켓볼 당구대, TV, 노래방기기 등 집기류를 들이면서 정식 개소하게 됐다. 올해 2월 박완수 도지사가 민생 현장 방문차 이곳 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할린 한인 주민으로부터 '쉼터 운영비 지원'과 '사할린 현지 가족들과의 왕래 어려움'을 듣고 신속한 해결을 지시한 바 있다.

경남도에서는 운영비 지원 건의에 대해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리모델링과 인허가 절차 진행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양산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여 쉼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할린 현지 가족과의 왕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현재 사할린 현지 잔류가족과의 교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이곳 쉼터를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휴식의 공간으로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이 고향 경남에서 따뜻한 보살핌과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할린 한인인은 전국에 2800여 명 거주중이며, 도내에는 김해와 양산에 135명이 거주하고 있다.

(경남일보)

###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 2024 한국어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연장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예콩쿠르(글짓기)를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어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바랍니다.

• **공모기간:** 2024년 9월 중순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으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문의전화: 8(4242)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ов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середины сентябр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Новости диаспоры

###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отметили День почитания родителей

10 мая 2024 г.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честь Дня родителей (어버이날).

Около 6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празднике. Для них был подготовлен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и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с традиционными корейскими и к-поп танцами,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С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й речью выступил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и председатель РМООСК О Владимир. Они поздравили собравшихся с праздником и выразили благодарность бабушкам и дедушкам.



###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ддержали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в зоне СВО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ярмарк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отделением "Союз женщин России" и женским движением Единой России.

На ярмарке жители и гости города могли приобрести разнообразные угощения и сувениры ручной работы для своих домочадцев. Все собранные средства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омощь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в зоне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кимпаб прошел в «Сахалин ханин»

Актив МООСК ЮС «САХАЛИН ХАНИН»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з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Галины Ан провел для мам особенных детей, 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ВИКТОРИЯ»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популярного блюда кимпаб.

Мастер-класс провела Светлана Ким. Она рассказала краткую историю появления этого блюда, способы приготовления, какие ингредиенты входят в приготовление и т.д.

Это не первый раз, когда мамы из ЮСАНОПИИ «ВИКТОРИЯ» приходят на мастер-классы,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ни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ахалин ханин». Руковод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редставляющей интересы инвалидов «ВИКТОРИЯ» Наталья И считает, что мамы особенных детей как никто нуждаются в смене обстановки, в подпитке позитивной энергии, чтобы вновь и вновь заниматься уходом, реабилитацией и развитием своих детей.



### В СахГУ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ограмма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Учи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на кафедре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коро состоится первый выпуск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Учи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базовый уровень)».

Вопрос о возможност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возник уже давно. Основная цель – подготовить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оторые будут жить и работать в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уча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корейской грамоте.

–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олгого времени руководители местных отделений РООСК обращались и к кафедре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и к президенту РООСК с просьбой направить в их районы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ак как очень много желающих по всему Сахалину изучать этот язык. Наконец, у нас появилась та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в дальнейшем мы планируем продолжать эту программу. О следующем наборе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ет объявлено через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 рассказала чуть подробнее о предистории появления программы заведующая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й кафедрой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и страноведения, кандидат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доцент Корнеева Ин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Трудоёмкость обучения по программе составляет 289 часов, из которых 36 часов составили лекционные занятия, 207 часов практических занятий и 46 часов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работы. Содержание

занятий охватывает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от алфавита до основных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конструкций),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ение Кореи, методику преподавания, психологию и другие дисциплины.

Обучение проходит с 1 октября 2023 года по 30 июня 2024 года в дистанционном формате. Всего программу проходят 10 учащихся, среди которых есть и опыт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из Углегорского и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ов, уже имеющие диплом о высшем образовании, и нынешние студенты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направления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и африканистика», которым только предстоит выпуститься в этом году.

– Это такая хорошая возможность, я очень рада участию в программе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Благодаря преподавателям,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 у нас занятия, я узнала много нового. После выпуска я смогу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лученные знания в преподава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поделилась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студентка 4го курса СахГУ Нарынская Анна.

Закончится обучение по программе выезд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которое продлится четыре дня.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йдет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ий семинар, где опытные педагоги и наставники поделятся своими методическими работами. Программа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лекции, открытые занятия, игры,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итоговый экзамен, где учащиеся продемонстрируют, чему смогли научиться за это время.

Александра КОВАЛЁВА,

Дарья ВОРОБЬЁВА, студенты СахГУ

### Праздник ТАНО отметил «Этнос»

Итоговые концерты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методи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ое национ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в конце каждо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стали уже давней и «доброй» традицией. В этом году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 учащиеся подготовили тематический концерт под названием «Праздник Тано», сообщили в ДШИ «Этнос»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Еще в эпоху трех королевств в Корее отмечался праздник благодарения богов за хороший урожай. Это день весеннего солнцестояния – праздник Тано. Название «Тано» означает пятое число пятого лунного месяца года.

Из древних источников известно, что корейцы в начале пятого лунного месяца, закончив сев, собирались вместе и устраивали веселье с песнями и танцами.

12 мая в ГДК «Родина» зрители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чувствовать и пережить все эмоции вместе с главными героями и участниками этого тематического концерта. Окунувшись в прошлое, смогли наблюдать, как проходит этот праздничный день в одной из корейских провинций с самого раннего пробуждения и до заката солнца.

В завершение директор ДШИ «Этнос» Анна Ворохова представила все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нцертмейстеров, а также выпускников отделения, успешно освоивших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общеразвивающие программы «Корейское национ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фотоконкурса «Я снова в Корее»

26 апреля в стенах Центра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Артэтаж» г. Владивостока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фотоконкурса по туризму в Корее «Я снова в Корее». Среди почетных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Ким Джу Тэ и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ладивостока Дарья Стегний.

Фотоконкурс, посвященный Корее, проводится уже в девятый раз (2016-2024). С 1 февраля по 16 марта жител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етившие Корею, прислали свои фотоработы на конкурс, в котором в этом году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88 человек. Организатор конкурса –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изма Коре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олучило около 300 фотографий, из которых независимое жюри отобрало шесть победителей и 30 лучших работ,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выставке в Центре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Артэтаж» в период с 26 апреля по 26 мая.

В своей приветственной речи директор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изма Коре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ак Ву Чжин поблагодарил всех гостей, пришедших на церемонию, а также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скорейшее возобновление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рею посетили 158 тысяч россиян.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данная цифра увеличится примерно на 20%. Мы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ем возобновления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чтобы вы могли комфортно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Желаем вам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и счастья», – сказал Пак Ву Чжин.

После всех приветственных слов, настал черед вручения призов и памятных подарков победителям конкурса.

К фотоконкурсу допускались фотографии, сделанные участниками лично в Корее, начиная с 1 января 2023 года, которые соответствовали тематике конкурса.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предоставить информацию на какое устройство, где и когда были сделаны фотографии. Авто-



Совместная фотография победителей и участников конкурса «Я снова в Корее» вместе с почетными гостями церемонии, сделанная 26 апреля в Центре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Артэтаж». / Фото: Юлия Епифанова

рам было запрещено обрабатывать снимки любыми графическими редакторами, не допускалось использование фильтров, фотомонтажа. Помимо этого, фотографии не должны были иметь каких-либ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графических элементов (авторских плашек, авторских знаков, добавленных рамок и т. д.). Была возможна незначительная корректура яркости и контрастности. Один заявитель мог прислать на конкурс не более трех работ.

Фотографи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на выставке, столь же уникальны и неповторимы, как и видение Кореи авторами. Среди работ можно увидеть изображения традиционных храмовых комплексов, в полной мере передающие чувство умиротворения и спокойствия. Или яркие цветные пейзажи национальных парков и зеленых равнин. Для кого-то же очарование Кореи проявлялось в более простых и повседневных реалиях: стремящиеся ввысь небоскребы, станции метро, поток автомобилей на дорогах или же простирающийся вид ночного города. Но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отличия, фотографии были объединены одним очень важным аспектом: они полны жизни, чувств, динамики и ярких красок. Фотоконкурс, посвященный Корее, стал уже ежегодной традицией, объединяющей наши страны. Посетители выставки могут вновь окунуться в атмосферу этой прекрасной страны и почувствовать эмоции, которые хотели передать авторы своих работ.

Юлия Епифанова, г. Владивосток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В РК начнётся эпоха, ориентированная на простых людей

Следующие три года станут эпохой,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на простых людей.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выступая 9 мая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которая была посвящена второй годовщине его пребывания на посту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е слои населения получают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а размер базовой пенсии будет увеличен до 400 тысяч вон (300 долларов). Валовой национальный доход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достигнет 50 тысяч долларов в год, - отметил президент. Он обещал поставить н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списке неотложных задач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Для координац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политики будет создан специальный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й орган. Его руководителем будет одновременно выполнять функции вице-премьера по соци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которому будет поручено также разрабатывать политику в сферах образования, труда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Юн Сок Ёль обратился к Национ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с просьбой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нового органа. Он призв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должать убеждать врачей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увеличения приёма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ради улучшения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траны. Коснувшись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знал различия во мнениях между РК и Японией по поводу общей истории. Он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вух стран ради будущих поколений. Юн Сок Ёль отметил также, что РК находится в «некомфортных» отношениях с Россией из-за конфликта вокруг Украины и приобретения Москв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оружия. Тем не менее, Сеул стремится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Москвой в экономике и других областях, «где есть общие интересы». Президент напомнил, что РК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краине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но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политики не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летального оружия какой-либо стране. Это была первая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 Юн Сок Ёля с августа 2022 года.

## Россия и КНДР возобновляют пассажирские перевозк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 Россия решили возобновить движение пассажирских поездов, остановленное в 2020 году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Как сообщил 13 мая в своём Telegram-канале губернатор российского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Олег Кожемяко, пассажирские поезда начнут курсировать между российским Владивостоком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городом Расон. Переговоры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Олег Кожемяко провёл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Расон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комитета Син Чхан Илем,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с визитом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Особ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зона Расон расположена на стыке границ трёх стран –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тая и России. Движение грузовых поездов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возобновилось в ноябре 2022 года.

## BBC РК провели учения по отработке отражения атаки с воздуха

14 мая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о-воздушные силы провели учения по отработке крупномасштабной воздушной атаки, в ходе которых проведена проверка эффективности противовоздушной обороны. К учениям, которыми руководило Оперативное командование BBC,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подразделения сухопутных, военно-морских сил и морской пехоты. Для перехвата более восьмисот условных целей были привлечены около 30 самолёто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ребители F-35A, различные средства ПВО, включая системы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Patriot, а также эсминец «Король Сэчжон Великий». Учения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недавний запуск Ираном более трёхсот беспилотников и ракет в сторону Израиля породил опасения по поводу возможного воздушного нападе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Южную.

## На Каннском фестивале будут показаны дв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а

Дв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фильма будут показаны во внеконкурсных программах 77-го Кан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который пройдёт с 14 по 25 мая. Криминальный боевик режиссёра Рю Сын Вана «Ветеран-2» отобран для участия в программе «Полуночные показы».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второй части мегахита «Ветеран», вышедшего на экраны в 2015 году, кризис, с которым сталкивается отдел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насильственн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возглавляемый детективом Со До Чхолом. Его роль исполнил Хван Чжон Мин. Внеконкурс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луночный показ» представляет популярные жанровые фильмы, обладающие высоким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ми достоинствами. В другой вне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е под названием «Каннская классика»,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демонстрируются документальные фильмы о классических шедеврах или важных фигурах в истории кино, будет показан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Ким Ряна «Киномолодость, Дон Хо». Фильм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первом директоре Пуса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Ким Дон Хо. В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фильмы не участвуют.

RKI

## Южнокорейскому президенту грозят импичментом

Всего лишь месяц прошел после поражения правящего лагеря на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в Южной Корее, а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ю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ппозиции уже стали всерьёз угрожать импичментом. Все это совпало с рекордно низким рейтингом лидер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что вполне может заставить его изменить свой подход к госуправлению.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для 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досрочное мирное отпра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в отставку дело хотя и относительно новое,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привычное. В 2006 году парламент, где доминировали консерваторы, объявил импичмент президенту-демократу Но Му Хену, но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за которым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остается решающее слово, счел основания для отстранения недостаточными и вернул Но в президентское кресло. Куда больший резонанс в мире вызвал уже успешный импичмент президента-консерватора Пак Кын Хе, которую на волне народных демонстраций досрочно сняли с поста в 2017 году.

В этой связи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импичмент президента»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 это дело, конечно, экстраординарное, но не невысказанное. Процедура для импичмента надо, чтобы не менее двух третей депутатов парламента поддержали эту акцию, причем лидера страны обвиняют в каких-либо серьезных нарушениях закона. После этого президент временно отстраняется от власти, а дело переходит в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Тот имеет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а то, чтобы рассмотреть предъявленные обвинения по сути, а затем решить, были ли действия депутатов и выдвинутые обвинения оправданными или все отменяется и президент продолжает руководить страной.

В Южной Корее 10 апреля прошли парламентские выборы, по итогам которых оппозиция - включая главную оппозиционную Демократическую партию «Тобуро» и несколько небольших партий – получил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92 из 300 мест в парламенте. Для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которая сохранила лишь 108 мест, это серьезное поражение.

Хотя новый состав парламента РК еще не приступил к работе, а с момента самих выборов прошел лишь месяц, но в адрес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Юн Сок Ёля уже полетели угрозы объявить ему импичмент. Дело в том, что Юн с уходящим парламентом, где также доминирует оппозиция, регулярно спорил и ветировал предложенные народными избранниками законопроекты. Теперь же оппозиция, которая несколько улучшила позиции, угрожает, что продолжение подобной практики и упрямство по ключевым вопросам могут вытеснить Юн Сок Ёлю «бокком», вплоть до досрочного ухода с поста. При этом оппозиция уверена, что при благоприятном стечении обстоятельств они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осемь недостающих для импичмента голосов за счет поддержки со стороны некоторых депутатов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которые также недовольны политикой Юн Сок Ёля.

«На этих выборах избиратели отдали оппозиции 192 мандата. Всего лишь восемь голосов над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менять конституцию, преодолевать вето президента и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дти и на более серьезный шаг», – заявил на днях глава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Пак Чхан Дэ. Под «более серьезным

шагом» он имел в виду именно импичмент. Депутат также дал понять, что недовольство народа нынешн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настолько высоко, что вполне может дойти и до народных требований объявить импичмент.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до этого лидер Партии обновления Родины Чо Гук указал: «Если выяснится, что президент так или иначе был замешан в каких-то нарушениях в связи с гибелью бойца морской пехоты, то это тут же станет основанием для импичмента». Такж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на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Партией обновления Родины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дробно обсуждались технические варианты предъявления обвинений Юн Сок Ёлю с последующим голосованием по импичменту.

Позже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этой же партии Ким Бо Хён заявил, что «три года – это слишком долго», явно намекая на оставшиеся по закону три года правления Юн Сок Ёля и возможность «сократить» этот срок путем досрочного отстранения от власти.

К президенту Юн Сок Ёлю скопилось немало претензий – от скандала с принятием его женой дорогой сумочки до инфляции, неумения и нежелания вести конструктивный диалог с политическими противниками и проблем в экономике. Кроме того, по ряду спорных и резонансных дел, включая инцидент с гибелью бойца морской пехоты, а также скандал вокруг действий его жены, президент упорно отказывается поддерживать идею оппозиции провести независим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с задействованием механизма спецпрокурора. Юн считает, что для выяснения правды достаточно Генпрокуратуры, которой, в свою очередь, не доверяет оппозиция, считая, что она контролируется президентом, тем более, что он сам - выходец из этой структуры.

Слабые пози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сейчас видны и по его рекордно низкому рейтингу. Сейчас его работу одобряют лишь 24 процента избирателей – так мало у него не было никогда за все время нахождения на посту лидера страны.

Судя по всему, лето, когда начнет работу новый состав парламента, обещает быть для Юн Сок Ёля непростым. Оппозиция, которая второй срок подряд получает убедительное большинство в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м органе власти, считает, что она получила мандат доверия от народа и намерена сильно давить на лидера страны. Тот, как уже говорилось, известен своим упрямством, склонностью продавливать свою линию, но очевидно, что народу это не нравится. Если же Юн продолжит пытаться игнорировать подход оппозиции, то при нынешней ситуации дело вполне может дойти и до импичмента. Понятно, что импичмент – дело серьезное, и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к стану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отивников не является нарушением закона, а потому и оппозиция придется дважды подумать, прежде чем пытаться снимать Юна с поста.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вполне может отклонить решение парламента. В этой связи, как видится, политическое будущее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от двух факторов - от его готовности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с оппозицией, идти с ней на компромисс и когда надо - уступать, а также от наличия каких-то серьезных оснований обвинять президента в нарушении закон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нтрразведка требует запретить прославляющую Ким Чен Ына песню

Появившаяся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давно прославляющая Ким Чен Ы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песня «Чхингынхан обои», что можно условно перевести как «Близкий, дружественный отец» получила так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и известность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сегменте интернета, что заставила вмешаться контрразведк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ционально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служб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пецслужба совмещает функции как разведки, так и контрразведки) официально потребовали ограничить доступ к роликам этой песни в Южной Корее, ссылаясь на положения Закона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тметим, что вызвавшая в РК споры песня была официально обнародована вместе с видеоклипком 17 апреля этого года. Песня прославляет лидера Страны чучхе Ким Чен Ына, которого изображают как своего рода заботливого и любимого вождя - он для всех северян как родной отец. Сама по себе песня - динамичная, веселая, задорная. Видеоролик сделан качественно. Композиция быстро привлекла внима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стала набирать большие показатели просмотров и прослушиваний.

Спецслужбы РК сначала наблюдали за этим феноменом, а вот теперь решили вмешаться. Как говорится

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м 11 мая заявлении от имени НРС РК, спецслужба обратилась в Комитет по контролю за радиовещанием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ями РК с просьбой запре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просмотр и прослушивание эт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в Южной Корее. Запрет предлагается провести на основании пункта 7 статьи 44 Закона об информации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ях. Данный пункт запрещает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 РК контента, который нарушает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Если говорить просто, то недавно появившуюся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песню спецслужбы РК посчитали идеологически вредной и решили вмешаться в связи с ее неожиданн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в Южной Корее.

Отметим, чт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 схожим основаниям в Южной Корее был запрещен просмотр каналов, в которых рассказывалось о жизни в КНДР. Ролики монтировалис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КНДР, а их озвучивали молодые северные корейцы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Содержание материалов было сугубо положительным для имиджа Страны чучхе. В Сеуле это тоже сочли пропагандой и запретили просмотр этих каналов в РК.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 Новый высокоточный офтальмологический микроскоп появился в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мени Анкудинова

В офтальмологическом отделении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явился новый микроскоп. Он пришёл на замену старого и уже используется специалистами при выполнении сложных манипуляций при лечении катаракты, глаукомы, при контузиях и травмах, кератопластике и других вмешательствах на сетчатке глаза.

Новый операционный микроскоп относится к классу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экспертного уровня. С его помощью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водят операции на различных отделах глазного яблока.

– В новом аппарате улучшена оптика, что позволяет получить кристально чистое и реалистичное изображение в окулярах микроскопа для комфортного выполнения любых хирургических манипуляций. Также в нём встроены ЖК-дисплей, который отображает основные настройки – хирург может увеличить участок или настроить яркость лампы, не отвлекаясь от основного процесса. Все эти опции облегчают работу специалиста и способствуют сокращению времени оперативного вмешательства, – рассказал заведующий офтальмологиче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Евгений Бутенко.

Микроскоп используется специалистами ежедневно. За год помощь в отделени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нескольким тысячам человек. Все сотрудники обучены работе на новом аппарате, а наличие встроенных в микроскоп ассистента и видеокамеры позволяет делиться опытом и с другими коллегами.

– Только что мы провели операцию по имплантац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хрусталика.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нового микроскопа такие манипуляции занимают от 15 до 30 минут. Вмешательство выполняется под местной анестезией. Пациенты находятся в сознании и слышат врача, но не чувствуют боли, – уточнил врач-офтальмолог Константин Кривоногов.

Обновление операционного микроскопа – это очередной этап в развитии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ы имени Анкудинова. В перспективе здесь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обре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фтальмологиче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В ближайших планах – проведение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в структурном подразделении. В этом году в учреждении после реконструкции открылись два отделения – кардиологии и первой терапии.

– У нас идет по два капитальных ремонта в год. Кроме общепалатных отделений работы ведутся в параклинических подразделениях. Меняем коммуникации, благоустроиваем территорию, – отметил главный врач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ы им. Ф.С. Анкудинова Андрей Ширяев.

Все ремонтные работы в лечеб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одятся с учётом требований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пациентов. Часть работ – в поликлиниках и ФАПх выполняется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нац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Курирует его реализацию в регионе лично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роме того, в развит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на уровн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недрен ряд собственных программ и инициатив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изванных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и доступ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аселению.

Так, в этом году будет запущена клиника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уровнем медицин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Это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одить операции, для которых раньше пациентам приходилось покидать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ациентоцентричное отношение позволяет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и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людей за счёт внедрения новых подходов к диагностике, профилактике и лечению.

##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ахалинского нефтегазовог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а сдадут в 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близится к завершению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ервой очереди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а. К осени этого года будут сданы тр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лабораторных корпуса, подготовлена вся необходимая инженер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Кроме того, активно продолжается возведение объектов – цехов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комплексов – в рамках второй очереди.

Детал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оказания сервисных услуг в нефтегазовой сфер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судил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зидентами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а.

На площадке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а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компании, оказывающие сервисные услуги добывающим предприятиям. Резиденты смогут арендовать помещения, обеспеченные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льготами в рамках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Южная».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а имеет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Для нас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фактически с нуля создать на Сахалине новую отрасль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е услуги, что ранее выполняли западные компании, теперь будут оказывать фирмы, локализованные у нас. С учетом важности проекта и перспектив его влияния на всю экономику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жу за ход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объектов и в режиме постоянного диалога обсуждаю все вехи с нынешними и будущими резидентами,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завершены основные магистральные сети по системам водоснабжения и водоотведения. До 30 июня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ение работ по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ю и 70 процентам основных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Полное завершение работ планируется в августе, – доложил главе региона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Сергей Ласточкин.

В рамках второй очереди сформировано 13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с точками подключения к инженер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дорогами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м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резидентами собствен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заключены договоры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х площадей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а.

Компании, являющиеся резидентами парка, будут оказывать здесь услуги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трубопроводов без остановк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ремонтировать газовые турбины, электродвигатели и генераторы, производить подводно-техническ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объектов, выполнять перевозки негабаритных грузов и оборудования.

Так, директор ООО «ВолгаПромАльянс» Андрей Пятибратов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у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ового участка для обслуживания нефтегаз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 Мы работаем на Сахалине с 2022 года. В промышленном парке планируем построить сервисный комплекс площадью 18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ся разрешительн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у нас на руках. В июле хотим приступить к земляным работам. Закончим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е региона Андрей Пятибратов.

Сразу два проекта в рамках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а реализует ООО «Айлэнд Джeneral Сервисес». Первый –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ий парк для нефтегазовых компаний. Общая площадь уже введенных капитальных сооружений – 15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Сейчас проект находится на стадии расширени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здесь появятся ремонтные мощности, новая техника.

– Второй проект связан с предоставлением промышленных газов. Мы только приступили к его реализации, потому что закончили сделку по покупке активов у ушедшей иностранной компании. Конкретно здесь будет хранение промышленных газов, поставка, а также производство азота и кислорода. Также хотели бы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водородного кластера, –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Айлэнд Джeneral Сервисес», ООО «Айлэнд Газ» Сергей Попсуев.

Отметим, на Сахалине в больших масштабах ведется добыча углеводородов и производство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Летом 2022 год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ал старт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ефтегазовог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а.

##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судил с главой РЖД проект строительства моста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материком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генера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равления ОАО «Российские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Олегом Белозеровым. На совещании обсудили план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моста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материком, развитие на остров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сообщения и запуск локомотивов на газомоторном топливе.

Ключевой темой совещания стал проект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линии Селихин – Ныш, которая должна связать Сахалин с Хабаровским краем через пролив Невельского. Согласно проекту, мостовой переход должен стать альтернативным путем перевозки грузов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другим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и регионами, что позволит эффективно распределить грузопотоки и снизить нагрузку в приморских портах.

На встрече также обсудили интеграцию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в общую систему город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ешение входит в мастер-план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и направлено на улучшение дорожной обстановки на участке между Христофоровкой и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кой. Уже к сентябрю 2024 года два новых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разъезда появятся в Луговом и Большой Елани.

Кроме того, с 2023 года власти региона работают над расширением маршрутной сети и увеличением частоты курсирования пригородных поездов в границ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город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В текущем году запустят сразу два новых маршрута –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Долинск и Корсаков – Долинск.

– На сегодняшней встрече мы обсудили развит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сообщения на Сахалине. Хочется отметить, что транспортная доступность на островах – наша приоритетная задача.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становит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дорожной сети. Мы активно работаем над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 покупаем новые поезда, устанавливаем транспортно-пересадочные узлы и двухпутные вставки, расширяем маршрутную сеть. Уверен, решения помогут улучшить дорожную обстановку на Сахалине и эффективно распределить пассажиро- и грузопотоки,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на совещании обсудили запуск на Сахалине грузового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локомотивов, работающих на газомоторном топливе. Новый тип локомотивов ТЭМГ1 позволит снизить выбросы углекислого газа в сравнении с дизельными аналогами на 26,8%.

## Современный передвижной кинотеатр начал работать для жителей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16 мая в пгт. Смир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арка «Мир»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чал работать кинотеатр, оснащенный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рассчитанный на 67 посадочных мест. Эта долгожданная инициатива позволит смирныховцам наслаждаться новейшими киноновинками, не покидая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Кинотеатр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прицеп грузового автомобиля, который трансформируется при приезде в пункт назначения в полноценный кинотеатральный зал. Он оснащен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системой кондиционирования и вентиляции.

– Передвижной кинотеатр не уступает по качеству кинотеатров страны и обладает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для просмотра российских и зарубежных премьер в комфортной обстановке, – поделилась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Кинопоказы продлятся до конца октября. Кроме того, планируются выезды кинотеатра в села Буюклы и Онор.

В прокат кинозала войдут текущие новинки кино с обновлением репертуара каждую неделю. До конца мая зрители смогут посмотреть российские фильмы: «Блиндаж», «Сто лет тому вперёд», а также зарубежные картины: «Всемирный потоп», «Идеальная зависимость» и другие. Любителей анимации порадуют «Пушистые спасатели: Новая команда» и «Кунг-фу тигр».

– Очень жду, когда к нам приедет этот передвижной кинотеатр. Дети хотят сходить на мультфильм, и мы обязательно сделаем это всей семьей. Приятно, что про нас не забывают и делают все для развития района,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пгт. Смирных.

Приобрести билеты можно в кассе рядом со стоянкой кинотеатра или на сайте sakhkino.ru, включая билеты по Пушкинской карте. Для пенсионеров действует программа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Кинопоказы для жителей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организуются Сахалинским кинодосуговым объединением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Напомним,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подготовили программу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людей могли приобщиться к театральному искусству, некоторые спектакли Чехов-центра переведены на гастрольный формат. В районе организуют выступления воспитанников музыкальной академии Ларисы Долиной. Это будут как целые концерты талантливых сахалинских авторов и исполнителей, так и отдельные номера на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и крупнейший в регионе производитель напитков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выпуске лечебных минеральных вод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етил крупнейшее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изводство безалкогольных напитков – завод компании «Сапико» (торговая марка «Северная звезд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овел рабочую встречу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едприятия, а также пообщался с сотрудниками.

В ходе встреч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благодарил руководство и сотрудников компании за поддержку, которая оказывается участникам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Директору предприятия Виктору Левандовскому губернатор вручил медаль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фронту».

Предприятие «Сапико» активно взаимодействует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бласти. Та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лагодаря существенн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е – около 37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компания запустила линию розлива безалкогольных напитков в алюминиевую банку. Сейчас проходит пусконаладка еще одной линии розлива кваса и безалкогольных напитков, но уже в ПЭТ-бутылку.

– Важно не просто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с помощью бюджетных средств, но и видеть результат этой работы, отслеживать ее эффективность. Сегодня я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ющееся остров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пообщался с его сотрудниками и руководством, обсудил планы на будущее – запуск линии розлива наших сахалинских минеральных вод,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 в планах руководства «Сапико» – продолжить расшире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а. Так,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и предприятие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выпуске лечебной минеральной воды и лечебной грязи. Их планируется реализовывать в аптечной сети, в том числе –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ая линия будет расположена в Корсакове. Там у нас есть необходимое помещение и оборудование,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е региона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Виктор Левандовский.

Попробовать островную минеральную воду можно уже сейчас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Бювет расположен на нижней станции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До конца года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обустроят еще один такой объект. Кроме того, павильон с лечебной минеральной водой скоро появится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Глава региона рассказал работникам предприятия о новых лабораториях, которые создаю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агропарке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ведущими вузами страны. Компания «Сапико» могла бы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с учеными в рамках выполнения своих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задач.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재중동포와 소통의 장 열어

베이징 민생현장 방문 및 동포 간담회  
정책방향 소개하고 애로사항 청취

'한국 정치·경제 발전상 해외교과서 프로젝트' 소개  
"동포사회 적극 참여" 당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 열어 올해 대회 준비현황 점검

재외동포청 이기철 청장은 5월 7일(화) - 5월 9일(목)간 재외동포 주요 거주국(211만 명, 2대 거주국)인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동포 기업과 한인타운 등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열어 현지 동포들의 목소리를 경청한뒤 동포사회와 고국의 상생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청장은 8일 그랜드 메트로파크호텔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제47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오는 10월 전라북도·전주시에서 열리는 '2024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고, 내년도 중국 개최 예정인 '2025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 청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우재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대회장, 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회장, 권순기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 회장, 이준용 중국한국상회 수석부회장,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상총연합회 회장 등 전세계 재외동포 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 주최 측인 재외동포청과 주관 지자체인 전라북도는 대회 프로그램, 대회시설 설치 운영, 기업·일반 참가자 관리, 홍보 등 대회 운영 계획을 발표했고, 운영위원들은 준비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 사업의 설명회도 열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바이어 역할, 수출 또는 투자상담, 다른 외국 기업을 소개할 재외동포 기업인을 발굴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겠다고 계획을 소개했다.

이 청장은 1995년 중국 진출 이후 현재 약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연 매출을 기록하는 베이징 내 대표적인 동포기업인 '오리온' 중국법인을 5월 8일 방문해 기업인을 격려하고, 사업현황을 청취했다.

이어 한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왕징 코리아타운의 한인 마트를 방문해 직접 식료품을 구매하면서 동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청장은 베이징뿐만 아니라 텐진, 허베이성 및 산시성 등에서 온 동포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에서는 "동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중국 동포사회는 한-중 양국 관계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재외동포 주재관인 동포담당영사 파견 재개,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글학교 지원, 중국 국적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국내 정착 중국 동포 지원, 재외투표소 확대 및 우편투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청장은 한국 정치·경제 발전상을 차세대 동포에게 교육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함양케 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교과서에 수록해 한국에 대한 거주국의 인식을 제고, 거주국 내의 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한국 정치·경제 발전상 해외교과서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중국 동포사회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 고려인 동포 청년·청소년 「한국이해과정」 참가자 모집 공고

재외동포청은 올해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맞아 고려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한국이해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5주 동안 진행될 이번 교육에 고려인 청년과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 자격: 러시아·CIS 지역에서 중학교 이상을 졸업한 만 15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러시아·CIS 지역 거주 고려인 동포 \* 5주간 교육과정 이수여 무리가 없는 학생

2. 모집 인원: 35명 내외 \* 최종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3. 교육 기간: 2024.7.22.(월)~8.23.(금) 5주

4. 주요 교육 내용: 한국어 수업(수준별 반 편성), 한국문화·역사 체험, 산업현장 시찰 등

5. 교육 장소: 국내 소재 대학교 캠퍼스 \* 추후 통보 예정

6. 접수 기간: 2024.5.9.(목)~5.29.(수) \* 한국시간 기준, 5.29.(수) 23:59 마감

7. 지원 방법: asru@korea.kr 메일 송부

8.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참가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선택 제출: 활동 증명 서류, 추천서(학교장, 한글학교장 등)

\* 참가 지원서는 한국어 또는 러시아어로 제출할 수 있으며, 러시아어 지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번역 프로그램(구글 번역기 등)을 활용하여 한국어로 번역 후 한국어 지원서도 함께 제출할 것

9. 우대 사항

독립유공자 후손 및 국가유공자 후손

유사 초청 프로그램 참가 경력 및 방한 경험이 없는 자

동포사회 및 거주국 지역사회 봉사 실적이 많은 자

학업 분야 및 활동 관련 수상 경력이 많은 자

기본적 한국어 구사능력 보유자

10. 합격자 발표: 2024.6.17.(월)

11. 참가자 지원 사항 교육기간 중 필요한 교육비, 숙식비, 여행자보험료 전액 지원

동 교육 과정 참가 목적으로 구입한 항공료(일반석)에 한해 70% 지원

\* 항공료 지원 상한금액: 130만원

12. 문의사항 전화: 032-585-3276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이메일: asru@korea.kr

## 전세계 한인경제인 수장이 되기까지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의 휴먼스토리

월드옥타, "모국과 상생하는 단체 위상 재정립"  
"수출 침병 초심으로 돌아가 향후 100년 비전 세울 것"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는 750만 재외동포 최대 규모의 경제단체다.

지난해 11월, 미국과 아시아권이 지배해온 월드옥타 회장 선거의 구도를 깨고 유럽지역에서는 최초로 박종범 회장이 제22대 월드옥타 수장에 올랐다. 박 회장은 그동안 유럽 한인사회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토대로 월드옥타에 혁신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실제로 박종범 회장은 유럽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쥔 인물이다.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영산그룹을 이끄는 제1세대 재외동포 기업인으로, 연매출이 한때 1조원에 달할 정도로, 영산그룹을 맨몸으로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장을 시작으로, 유럽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회의 부의장 등 맡는 직책마다 출중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왔다.

그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으며, 장보고글로벌재단으로부터 '21세기 장보고 상'도 받았다.

한상 최대의 축제인 한상대회장까지 역임한 그가 다시 월드옥타 회장에 나선 것은 경제인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서다.

이는 단지 마무리의 의미가 아니다. 출마의 변에서도 밝혔듯, 소통과 상생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월드옥타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만들어내겠다는 청사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그는 새로운 변화의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협회운영과 정부수행사업의 투명성과 공정한 운영, 둘째, 회원간 소통과 교류 확대, 셋째, 7대 경제단체로의 도약을 위한 내부 역량강화, 넷째, 월드옥타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한 새로운 사업개발추진 등이다.

본지는 취임 6개월을 맞은 박종범 회장의 월드옥타 비전과 구상을 들어 보았다. 이와 함께, 좀 더 따뜻하고 진솔한 휴먼 스토리, 그의 내면의 이야기를 듣는 데 집중했다.

인터뷰는 지난 4월 26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월드옥타 사무국에서 진행됐다.

**월드옥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는 1981년에 설립,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수출 촉진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는, 재외동포 경제 네트워크입니다. 전 세계 71개국 150개 지회에 7,000여명의 재외동포 CEO들과 차세대 경제인 21,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한데 모여 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증진,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고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회원간의 친선도모와 네트워크 강화, 정보 교류는 물론, 범세계적 한민족 경제 공동체로서 민족 경제 공영권 구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월드옥타의 주요 사업으로는 크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조직이 깔려 있는 월드옥타라는 조직이 4월에는 대표자들이 모이고, 10월에는 모든 경제인들이 다 모여 국내외의 각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지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충남 예산에서 개최했는데, 충남도와 충남 예산군이 같이 호흡을 맞춰 '세계한인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거예요.

해외에서 700여 명의 우리 회원들이 참가했



월드옥타 본사 회의실에서 박종범 회장 (서울=동포저널) 이석수

는데, 상당 실적도 계약금액이 190억 정도, MOU 금액이 한 390억 정도로 엄청난 실적이 나왔죠.

그외에도, 지역경제인대회, 차세대 글로벌창업 무역스쿨, 대륙별 차세대 리더스 컨퍼런스, 해외지사화사업, 수출친구맺기, 수출초보기업지원사업, 탄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글로벌기술사업과 협력센터사업, 글로벌취업지원사업, 글로벌창업지원, 수출바우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월드옥타가 주최하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재외동포청이 주관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한상대회)'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저희 월드옥타에서 주최하는 것은 '세계한인경제인대회'로 햇수로 27년이나 되었죠. '한상대회'는 동포청에서 주최하는데, 지난해부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름까지 거의 같아져 더 혼동하게 되었죠.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해외 지회별 대표자들의 역량강화 및 주요 정보제공, 지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한인 경제인과 국내 지자체간의 투자 및 관광 유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해외 한인 바이어와 국내 중소기업 간의 수출판로 개척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경제인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 경제인 단체들이 따로따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재외동포청이 창원에서 같이 한번 모여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월드옥타가 10월에 비엔나에서 무역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유럽의 심장부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월드옥타만의 행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한국 상품 유럽 박람회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쯤에 '2024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로 명명을 했죠. 산업통상자원부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전 부처가 참여하기로 했고, 주관도 월드옥타와 코트라가 같이 하기로 해 이미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최소한 3000명 정도를 모으려 합니다. 회원들 각자가 다 바이어들이니까, 1500명 이상의 우리 월드옥타 회원들, 한국의 중소기업 참여 업체들, 관련 단체들, 유럽 내 바이어들까지 발굴해서 총 3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행사가 될 예정입니다. 최소한 350개에서 500개 정도의 한국 부스를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추진중인데, 이번에 하나의 모멘텀으로 만들고 싶어요.

**【한국(서울)=동포저널】 이석수 편집인 (다음 호에 계속)**

#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смогли бесплатно проверить свое здоровье

Фестиваль «Здоровым быть модно»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 островах проходит уже не первый раз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Специалисты нескольких профи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субботу, 11 мая, несли вахту на третьем этаже ТРК «Сити Молл». Здесь в нескольких локациях посетители смогли пройти скринингов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на факторы риска возникновения хронических не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получить сопутствую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сдать экспресс-тест на ВИЧ. Жители и го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кже смогли проверить уровень общего холестерина и глюкозы в крови, измерить артериальное давление, насыщение крови кислородом и определить уровень угарного газа в выдыхаемом воздухе.

«Мы стараемся ежегодно, не менее двух раз,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подобный фестиваль в торговых центрах города, он достаточно массовый. Вместе с центром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оровья здесь задействованы детская поликлиника, наркодиспансер, кожновендиспансер и СПИД-центр. На каждой площадке можно проверить собственное здоровье. Детская поликлиника, например, выставила большой стенд, где мамочкам и их детям будет интересно посмотреть на грудное вскармливание. Здесь же есть отличный наглядный макет о вреде курения. Наркодиспансер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ит краткое индивидуальное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ое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е. Сотрудники кожно-венер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могут посмотреть различные высыпания на коже, для этого при них есть переносной аппарат. Мы бы очень хотели, чтобы нас поддержали коллеги из друг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ведь там тоже есть наши маленькие филиалы, кабинеты и отделения медпрофилактики, где они также могут организовать такие 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Здоровым быть не только модно, но и очень полезно, выгодно для кошелька.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и

медицинские осмотры,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я — основа основ нашего здоровья, ведь в любом случае болезнь легче всего предупредить и предотвратить, чем потом лечить», — рассказала заведующая отдел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оровья и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Айгуль Ахметова.

## 사할린 경찰, 전화 사기꾼 공범 체포

사할린 주 경찰은 전화 사기꾼의 공범으로 밝혀진 21세 토마리 청년을 구금했다. 이 청년은 연금 수급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인터넷 포털 "내무부 미디어(MVD MEDIA)"가 전했다.

이 건은 74세와 88세의 코르사코브 여 주민 두 명이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기꾼들은 노인들에게 친척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일반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연금자들은 총 418,000루블리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작전 및 수사 과정에서 택배 기사의 신원을 파악하고 토마리의 거주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이 청년은 인터넷에서 택배 기사 구인 광고를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코르사코브시로 가서 연금 수급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범에게 송금하고 금액의 5%를 보상으로 챙겼다.

러시아 연방 형법 제159조(사기)에 따라 구금자에 대한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다. 예방 조치로 구치소 송환이 선택되었다.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 Сахалинская полиция задержала пособника телефонных мошенников

Сотрудники поли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держали 21-летнего жителя Томари, который оказался пособником телефонных мошенников.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забирал деньги у обманутых пенсионерок и передавал их организаторам преступной схемы, сообщает интернет-портал «МВД МЕДИА».

Две жительницы Корсакова, 74 и 88 лет, обратились в полицию, став жертвами мошенников. Злоумышленники использовал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ую схему: они сообщали пожилым женщинам, что их родственник попал

в ДТП и выманивали у них деньг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пенсионерки лишились 418 тысяч рублей.

В ходе оперативно-разыск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лиция установила личность курьера и задержала его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Томари. Оказалось, что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нашел в интернете объявление о работе курьером. По указанию своих кураторов он приехал в Корсаков, забрал деньги у пенсионерок и перевел их сообщникам, оставив себе 5% от суммы в качестве вознагражде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задержанного возбуждены уголовные дела по статье 159 УК РФ (мошенничество). Мерой пресечения избрано заключение под стражу.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родолжается.

##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에서 곰이 소를 습격

우글레고르스크 구역의 포레치예 마을 근처에서 곰이 가축을 습격했다. 이 사건은 현지 농부가 신고했다고 "우글레고르스크키예 노보스티" 텔레그램 채널에서 전했다.

사할린 주민에 따르면 이 곰은 5월 10일에 소 한 마리를 잡아먹고 다른 두 마리를 거의 물어뜯었다고 한다. 곰이 가축 중 한 마리의 등을 공격한 후 주변이 피비린내가 풍기며 영망이 되었다.

농부가 언급했듯 산림청 사냥꾼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이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Медведь задрал корову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Медведь напал на домашний скот в районе села Поречье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О данном инциденте рассказал местный фермер, сообщает telegram-канал "Углегорские новости".

По словам сахалинца, одну корову медведь съел, а еще двух чуть не задрал 10 мая. После нападения хищника на спине одного из животных осталось кровавое месиво.

Как отметил фермер, на место происшествия приехали охотники из лесничества. Они утверждают, что приму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меры.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4 года!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Бюро печати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